

이낙연 총리 인준... “내각다운 내각 최선”

국회 임명동의안 찬성 164·반대 20명... 한국당 퇴장 속 통과

호남민심 “환영·적폐청산 기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기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이로써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이 후보자는 국회 인준 절차를 마무리 짓고 45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이 후보자에 대해 ‘인준 불가’ 입장을 정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자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이날 인준안 통과를 보수 야당들의 반대 속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찬성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총리는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정부다운 정부, 내각다운 내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문재인 정부에 안겨주신 역사적 책무를 다하도록 신명을 바치겠다”며 다짐했고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임명동의안 통과 사실상 ‘반쪽 본회의’를 통해 완료됐다는 점에서, 야당 간의 협치 구도가 순탄치 않게 전개될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근, 승용차에서 내려 계단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음달 2일에는 김상조 후보자, 7일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린다.

한편 마무리 되지 않은 내각 인선에서 이 총리가 제청권 행사 등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총리는 ‘의전총리’ 등으로 불리며 형식적인 직책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이 후보자의 취임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도 속도를 내면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전남지사 출신인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에 대해 호남 민심도 환영한다는 분위기가 다. 이 총리가 호남 차별 등 시대적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유라 도피 245일만에 송환... “일단 저는 좀 억울하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31일 오후 검찰 호송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이렇게 말했다. 윤 수석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엔 6기 발사대 보관이란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종적으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배치’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청와대가 사드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인지한 후 정 안보실장이 지난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하며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됐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가 보고 고의 누락 과정과 의도에 대해 군 고위층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국방부, 사드 4기 추가반입 의도적 보고 누락”

軍 고위층 강도 높은 조사 예고

청와대는 지난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운영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여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여러 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며

일입니다



2017 청소년 축제

7월 1일(토) 문화전당 5·18민주광장 특설무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열립니다.

광주일보는 오는 7월 1일(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특설 무대에서 ‘제6회 청소년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밴드, 댄스, 보컬, 풍물 등 경연과 3:3 농구대회 등이 펼쳐지며 각 대학 인기밴드 및 공연팀

의 특별공연도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전국 대학의 입학 홍보관도 운영함으로써 중·고생들의 진로와 대학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성원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7월 1일(토) 오전 10시 ~ 오후 7시
- 장 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특설무대
- 경연부문 : 밴드, 댄스, 보컬, 풍물, 기타 공연, 3:3 농구대회
- 참가자격 :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령대 청소년
- 참가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55
- 참 가 비 : 무료
- 주 최 : 광주일보사, (사)아시아문화



光州日報社

광주디자인비엔날레 D-99... 미래 디자인 비전 제시

30개국 174개 기업 작품 전시

광주시와 (재)광주디자인센터는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D-100일을 맞아 지난 31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마스터플랜 발표회를 열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미래를(FUTURES)’을 주제로 오는 9월8일부터 10월23일까지 46일간 광주비엔날레전시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개최된다. <관련기사 16면>

행사에서는 영국·독일·미국·중국·일본·베트남 등 30개국 디자이너 222명이 참가하고 174개 기업 작품 732종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 국내외 대학 15개팀 100여명의 청년 디자이너들이 미래디자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작품(제품) 전시뿐 아니라 ‘정책 서비스 디자인’ 등 미래 디자인 역할과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광주디자인센터와 광주시, 광주마을본정해결센터가 공동으로 오는 8월4일까지 공무원·일반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생활개선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서 서비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마을분쟁 개선 해법을 도출한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리나라의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할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율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키오스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